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학교공간 개선 계획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2019. 5. 23.

정부는 지난 5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하였다. 이번 정책은 ‘아동은 양육 대상이 아니라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4개 영역에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와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는 놀이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대표된다.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설치되는 놀이혁신위원회는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는 행동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특히 놀이사업 개발과 아동놀이사업 확산을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지자체가 놀이에 필요한 협력체계, 프로그램, 인력, 공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아울러 돌봄·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동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한다. 교실을 모둠활동 등이 쉬운 아동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실로, 그리고 운동장·체육관 등을 구역(블록)형 놀이공간으로 제안한다.

학교 공간 개선 및 혁신놀이터 사례



서울시 연동초등학교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자료: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2019),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5월 23일자 보도자료.